

오스코텍, 기능성 식품 미국판매

Amazon 이어 Drugstore와 유통계약 ... 골다공증 신약 임상실험도

오스코텍(대표 김정근)이 7월19일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미국의 Amazon.com에서 골다공증 개선 및 뼈 건강유지 기능성식품인 오스테오피크(OsteoPeak®) 시리즈의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8월19일에는 미국 최대의 인터넷 의약품 및 기능성식품 쇼핑몰 Drugstore.com과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드럭스토어닷컴은 인터넷 최대의 의약품, 기능성식품 및 미용제품 전문 쇼핑몰로 1999년 의약품과 기능성식품의 판매를 시작했고, 2000년 고급 미용제품 전문 판매 사이트인 Beauty.com을 인수하면서 크게 성장해 현재는 56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이 2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오스코텍은 6월 미국의 체인약국 모임인 NACDS(National Association of Chain Drug Stores)에서 아마존닷컴과 드럭스토어닷컴과의 접촉을 시작했다.

OSTEOPEAK



오스테오피크 시리즈는 미국 유기농(Organic) 인증, 코셔(Kosher: 정결식품) 인증 획득과 함께 심사제품의 80%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GNC의 심사기준을 통과해 현재 미국 전역의 1400여개 주요 GNC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오스코텍은 1998년 골다공증과 관절염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된 뼈 전문 생명공학기업으로, 고유의 기반기술(Platform technology)과 글로벌 수준의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골다공증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7월에는 첫번째 골다공증 신약후보물질인 <OCT-1547>의 전임상 실험을 해외 3대 CRO 기업 중 하나인 Quintiles에 의뢰했다.

한편, 오스코텍은 바이오 벤처기업으로는 드물게 2003년부터 독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외국 벤처캐피탈들로부터 6개월 이상의 심사 끝에 300만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했다.

<화학저널 2005/08/24>